

선배 목사님들

몇 년 전 부 목사 시절 담임목사님이셨던 이제는 80세가 훨씬 넘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당시 1년여 만에 받은 전화였다. 뉴저지 땅으로 한 달 간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셨다며 잘 지내느냐고 물으셨다. 목사님께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듣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모른다. 몇 달 뒤 한 번 만나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던 또 다른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3세에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 목사님은 평생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가까운 분이셨다. 한국과 미국 또한 중동지역과 아프리카를 위해 미국 교단에서 64년간 수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다. 그 목사님은 병이 발견되기 바로 전까지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셨다.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는 그분들에게 늘 존경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이전에는 어떤 사역 결과를 냈느냐는 것에 따라 존경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80이 넘은 목사님들의 인생을 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반짝 사용 받는 도구도 있겠으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은 그분들이 존경스러웠고 그 목사님들이 내 주위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마웠다.

우리는 결과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평생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믿음 생활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향기를 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3-35절)라고 하며 자신의 결단을 고백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그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 하며 여쭈어 보았다. “목사님 미국으로 그냥 들어오시지요? 사모님도 안계신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들어가면 아주 은퇴요. 여기에 있어야 가끔이라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겠나?”

목사님은 지금 연로하셔서 사역지가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에 마치지 않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귀한 것임을 알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